

영산재의 성립과 전개 고찰

고상현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

Corresponding Author : avalo09@hanmail.net

국 문 초 록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한국불교의례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근년에 수록재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영산재보다 수록재가 역사적인 유래와 규모가 더 광대하고 국가주도로 설행되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영산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영산재의 한국적 기원과 전개과정을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영산재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영산재는 조선초에 간행된 『진언권공』(1496)에서는 ‘작법절차’라는 항목으로 나타난다. 이 절차는 조선중기 인조 12년(1634)에 간행된 『영산대회작법절차』에도 나타난다. 여기에는 ‘영산대회작법절차’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후기 『오종범음집』(1661)이나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1721)에도 영산작법, 영산대회작법으로 명시되고 있다. 근대기 <독립신문>의 기사에는 영산제로, 『석문의범』(1935)에는 영산재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조선초와 그 이후의 것들에서 달라진 점은 창훈(唱魂)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초의 영산회가 부처님의 설법장면 등 가르침을 의례로 외형화하는 교화적인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중기 이후에는 창훈이 더해지면서 추천(追薦)의 개념이 추가되어 불교 교화와 망혼의 천도가 함께 설행되었다.

* 본고는 2016년 6월 25일 개최된 제8차 불교의례문화 국제세미나 『수록재와 영산재의 성립 고찰』에서 발표한 「한국 영산재의 성립과 전개 고찰」을 수정 보완 하였다.



I. 머리말

영산재¹는 1973년 11월 5일 '범패'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벽옹(1909~2000)스님과 송암(1915~2000)스님이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1987년 11월 7일 범패와 작법(作法), 장엄(莊嚴) 등이 '영산재'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을 받았다.² 이후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이 잇달아서, 부산영산재(1993.4.20.), 전북의 영산작법(1998.1.9.), 인천 범패와작법무(2002.2.4.), 마산 불모산 영산재(2002.2.9.), 제주불교의식(2002.5.8.) 등이 지정되었다.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한국불교의례

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불교의례라고 하면 영산재를 떠올리거나 가장 규모가 큰 재³로 알려져 있었다.

영산재에 대한 선행연구⁴는 대체적으로 영산재의 성립 연원·경전적 근거 등 영산재 의식의 연구,⁵ 범패(음악)·작법(무용) 등 영산재의 체계 분석,⁶ 지역별 영산재 연구,⁷ 영산재의 교육, 영산재의 공연예술화·축제 등 문화콘텐츠로의 활용,⁸ 수록재 등 타 의례와의 비교,⁹ 해외 불교의례와의 비교 연구¹⁰ 등으로 진행되었다.

- 1 일반적으로 영산재와 관련하여 개화기 이후 등장한 영산재라는 명칭을 통칭하고 있다. 하지만 개화기 이전의 사료에서는 영산회, 영산대회, 영산(회)작법 등으로 불렸다. 그런 까닭에 개화기 이전은 영산회로 통칭해야 하며, 근대 이후는 영산재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는 영산재를 주로 하고 문맥에 따라 영산회를 혼용하고자 한다.
- 2 장엄부분에 지광(1925~1997)스님, 작법무에 일응(1920~2003)스님이 새로 인정되었다. 2003년 일응스님의 열반으로 보유자가 없다가 2005년 전수후보(조교)였던 구해스님(김인식)이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 3 한만영의 불교음악 연구 이래로 이런 인식은 지속되었다. 한만영, 1984 증보판, 『한국불교음악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3.
- 4 영산재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른 논고를 통해 밝히고자 하므로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제목들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다만, 본고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본문내용에 따라 언급하고자 한다. 영산재에 대한 국내 박사학위논문은 8편이다. 이외에도 화청, 불교무용 등과 관련한 것까지 합하면 11편에 이른다. 물론 영산재를 키워드로 하는 논문은 추가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의 분석 범위는 이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리스포유에서 '영산재'로 검색하면 학술논문 93편, 단행본 30여권이 나온다. 이들의 연구경향은 박사학위논문 11편과 유사한 흐름을 지니고 있다.
- 5 심효섭, 2005, 『조선전기 영산재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6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선행되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 만큼 관련된 학술논문도 많은 편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서정매, 2015, 『영제범패 영산작법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김화미, 2013, 『甘露頓과 현행 재의식에 나타난 作法舞 研究』, 동방대학원대 박사학위논문. 채해련, 2011a, 『靈山齋 梵唄의 旋律에 관한 연구 -박승암류 상단권공 '훗소리'·'깃소리'를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김응기, 2004, 『靈山齋 作法舞 梵唄의 研究』,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이애경, 1999, 『靈山齋 作法의 舞蹈美學的 考察』,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 7 백일형, 1986, 『범패 팔공산제에 관한 연구』; 백일형, 1987, 『범패 팔공산제에 관한 연구 -종성·할향·합장계·칠여래·화청을 중심으로-』; 최현, 2006, 『부산·경남지역의 영산재』; 윤소희, 2008a, 『영남범패의 소리길과 성음』; 윤소희, 2008b, 『영남범패 전승에 관한 연구』; 윤소희, 2011, 『영남범패연구』; 서정매, 2012a, 『부산지역 범패승 연구』; 서정매, 2012b, 『영제 '삼귀의' 절차의 시대적 변천 연구』; 서정매, 2013, 『영제 '영산작법' 절차의 시대적 변천 연구』; 손인애, 2014, 『경제(京制) 각배 '갈수(乞水)' 연구(1) -개성지역 범패와 관련하여-』 『공연문화연구』 29, 한국공연문화학회(구 한국고전학회); 박해정, 2011, 『충청도 불교음악 연구의 현황과 전망 -내포 영산재의 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음악문화연구』 2, 한국음악문화학회.
- 8 김영렬, 2011, 『영산재의 문화 콘텐츠 만들기』, 운주사. 박성철, 2005, 『靈山齋의 文化的 活用모델 研究 -'회심곡'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박진태, 2006, 『한국 불교축제와 공연예술의 관련양상』 『공연문화연구』 12, 한국공연문화학회(구 한국고전학회); 고상현, 2015, 『불교축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 『불교학보』 제70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9 영산재와 수록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성운, 2015, 『영산재와 수록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73, 한국불교학회; 심상현, 2011, 『영산재 성립과 작법의례에 관한 연구』, 위덕대 박사학위논문; 심효섭, 2003, 『조선전기 기신재의 실행과 의례』 『불교학보』 40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김희준, 2001, 『조선전기 수록재의 실행』 『호서사학』 30집, 호서사학회.
- 10 전인평, 1998, 『티벳 불교음악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21집, 한국음악사학회; 최로덴, 2006, 『티벳 불교의식의 수행적 의미 약 가 무 등의 개별적 요소에서 종합 의례까지』 『영산재학회 논문집』 제4호, 옥천범음대학; 윤소희, 2009, 『티벳 참무를 통해 본 처용무와 영산재-사하(夏河)의 라브랑스(拉卜楞寺)를 통하여-』 『한국음악연구』 46, 한국음악학회.

이러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불교음악의 문법이 해석하기 쉽지 않고 악곡끼리 변별되는 음악성을 찾기 어렵고 의례집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만영, 홍윤식의 연구성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¹¹ 그런 까닭에 영산재 연구에서 논쟁점은 그동안 두드러지지 않았다.

최근 수록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동해 삼화사, 서울 진관사, 마산 백운사 3곳의 수록재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영산재보다 수록재가 오히려 역사적인 유래가 깊고, 규모도 더 광대했으며 고려시대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영산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례가 분화되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던 두 의례는 현행 주도층들의 이견으로 대립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¹²

또한 영산재의 한국적 연원으로 시대 비정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영산재의 성립에 대해서는 초기 연구에서는 이능화, 홍윤식의 고려시대설과 김종일, 이영숙 등의 조선시대설이 주류를 이루었다.¹³ 이러한 주장이 굳어지는 듯하다가 고려시대설에 대한 또 다른 주장¹⁴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설도 세분화되어 조선전기설¹⁵ 등으로 구체화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 타 의례와의 비교에서는 특히 수록재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수록재와의 연관성과 변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¹⁶ 더 나아가 영산재라는 명칭에 대

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2장에서 영산재의 한국적 성립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의례집에 나타난 사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3장에서는 이들 의례집에 나타난 영산재의 전개양상을 수록재에서의 분화설과 영산재의 명칭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영산재의 한국적 성립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범패, 의례 연구의 연원으로 쌍계사 진감국사비를 근거로 하여 진감국사로 보고 있다. 영산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을 설한 영산회상의 재현을 상징화하는 의식¹⁷이며, 『법화경』의 교리에 바탕한 법화신앙을 기본으로 한 불교 친도의식¹⁸으로, 49재의 발전된 형태라고도 한다.¹⁹

이능화와 홍윤식은 영산재가 언제부터 있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영산재를 구성함에 있어 기본요건이 되는 범패와 영산재의 목적이 되는 영혼천도 등의 불교의례가 이미 신라시대부터 있어 왔으므로 비록 오늘에 전하는 영산재의 구성내용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연원이 될 만한 것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있었다고 하고 있다. 오늘에 전하는 영산재의 구성내용은 조선중기에 증보(增補) 편찬된 『범음집(梵音集)』에 영산작법 절차가 수록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고려불적질에서도 불

11 이보형, 2012, 「한국의 종교음악연구와 과제」, 『한국음악문화연구』 제2집, 한국음악문화학회, pp.19~20.

12 영산재보존회는 수록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시,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불교신문 제604호, 2013.05.04; 헤일명조, 2015, 「수록재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제언」, 『한국 수록재와 공연문화』, 글누림, p.575 재인용.

13 홍윤식, 1989, 『불교의식』, 문화재관리국; 김종일, 1999, 「현행 불교의례의 현장조사 -현행 영산재에 대한 고찰-」, 『불교전통의례와 연극 연희회의 방안』, 엠에드; 이영숙, 2003, 『조선 후기 괘불탱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4 심상현, 2011, 앞의 논문, pp.3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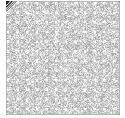
15 심효섭, 2005, 앞의 논문, pp.65~78.

16 이상운, 2015, 앞의 논문, pp.417~449; 김희준, 2001, 앞의 논문; 심효섭, 2003, 앞의 논문.

17 홍윤식, 2001, 『영산재』, 대원사, pp.8~17; 법현, 2005, 『한국의 불교음악』, 운주사, p.16.

18 홍윤식, 2001, 위의 책, pp.8~17; 채혜련, 2011b, 『영산재와 범패』, 국학자료원, p.37.

19 채혜련, 2011b, 위의 책, p.45.



수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도 영산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⁰

고려시대를 연원으로 보는 견해는 심상현에 이어지고 있다. 그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영산재는 고려 초중엽 수륙재의 미비점에 대한 반성 즉, 부처님께 올릴 공양의식의 결여를 발견하고 주간의식인 영산작법을 구성 보충함으로써 새롭게 탄생한 재의식”이라 하고 있다.²¹ 고려 초중엽의 수륙재에 대한 반성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소동파(1036~1101) 혹은 그의 누이[妹氏]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선(智禪)이 편찬한 『오중범음집(五種梵音集)』(1661)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영산작법(靈山作法)은 소동파가 지은 것이라 하고, 혹은 소동파의 누이가 지은 것이라고도 한다. 어떻게 이와 같은 줄 아는가. 널리 보고 들은 사람이 이르기를, 소동파가 널리 장경(藏經)을 살펴 수륙재의식(水陸齋儀式)을 지음에 그 글이 밤에 베푸는 의범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낮 동안에 베푸는 법화경 법회가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그 누이가 영산작법절차를 지었다고 운운하였다.²²

위에 따르면, 수륙재의식은 소동파가, 영산작법절차는 그의 누이가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소동파(蘇東坡)는 죽은 아내를 위해 수륙재의 법을 찬탄하는 16편의 글을 지은 바

있다. 소동파가 대장경을 열람하고 수륙재 의식을 지었는데,²³ 그 글의 내용이 밤에 베푸는 의식만 있고 법화경에 의거한 주간의 범회가 없었다. 그래서 그의 누이가 주간의식의 범회를 위하여 영산작법절차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산재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불교의례로서의 특징도 사라지게 된다.

또 다른 근거로는 고려 대각국사 의천설을 확신하고 있다.²⁴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작으로 보는 관점도 제기하고 있다. ‘천태종 - 법화경 - 대각국사 - 영산재’의 관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²⁵ 하지만 이는 영산재는 『법화경』에 기초하고, 이를 소의경전으로 하는 천태종과 그의 개창조인 대각국사와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효섭은 고려시대 백련사의 보현도량에서 시원적인 형태가 보이고 여말선초의 법화법식으로 전개되다가 조선전기 세종 2년(1419)에 ‘기신재와 추천재를 수륙재로 합설하라’는 명으로 인해 영산회가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²⁶

권오성은 한국의 바라무와 작법무 같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볼 수 없는 불교무용이나 패불을 걸어 놓고 의식을 진행하는 티벳이나 인도 및 중앙아시아 등 서역불교와의 친연성(親緣性)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몽고나 요·금·원의 영향관계를 밝혀야 우리나라 범패의 실체에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²⁷ 윤소희는 티벳의 참(cham)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고 있다.²⁸ 이들

20 이능화, 1932, 『조선불교통사』 하권, 보림각; 홍윤식, 1987, 『영산재』,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p.9.

21 심상현, 2015, 「영산재의 효율적 전승과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23, 한국정토학회, p.254.

22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2집, 『오중범음집』, 182中(『한국불교전서』 12책), “此靈山作法乃東坡之作 或云東坡之妹氏之作云云 何以知之 博覽者云 東坡廣尋藏經 撰水陸齋式 其文當於夜設之規 閱畫演蓮經法會 故其妹氏 乃作靈山作法節次云云”.

23 안진호는 1935, 『석문의범』 권상, 만상회, p.238에서 송대(宋代) 소동파는 ‘수륙법상천(水陸法像贊)’을 다시 짓고 송 희녕 연간(1068~1077)에 동천양악(東川楊鐸)이 의문 3권을 다시 지었다고 적고 있다.

24 심상현, 2011, 앞의 논문, pp.36~42.

25 심상현, 2011, 위의 논문, pp.35~41.

26 심효섭, 2005, 앞의 논문, p.109.

27 권오성, 2005, 『한국범패의 역사』 『한국전통음악』, 민속원, pp.69~87.

28 윤소희, 2009, 앞의 논문.

은 고려 후기 원 간섭기의 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현스님은 영산재의 발생시기를 조선중기에 편찬한 『작법귀감』이나 『범음집』에 영산재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²⁹ 『작법귀감』은 조선후기인 1826년에 편찬된 것으로 삼보통청(三寶通請)에서 영산회와 유사한 재차를 수록하고 있다.

이성운은 의문 간행으로 볼 때 영산재는 조선초기부터 설행되었지만 ‘영산재’라는 이름으로 불린 시기는 19세기 이후라고 하고 있다.³⁰ 수록재의 영산의식이 영산재와 다른 것은 수록재나 예수재에서 3일, 5일, 7일의 독경 또는 설법의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수록재의나 예수재의³¹에서 보듯이 조선전기에는 ‘영산재의’라는 의문이 별도로 등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양문’은 수록재와 예수재 등의 칠재를 행할 때 설행하는 의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영산회는 어느 시기에 등장했으며, 어떤 명칭으로 변화되었을까를 통해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초 연산군 2년(1496)에 인간된 『진언권공』에서는 작법절차라는 항목으로 나타나는 재차가, 인조 12년(1634)에 인간된 『영산대회작법절차』와 유사하다. 이것은 지선(智禪)이 여러 의례집을 채록하고 보완하고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이 서문을 쓴 『오종범음집』(1661)이나 경기도 양주 삼각산 중흥사에서 강희 60년(1721, 경종 1)에 개판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1721)³² 등 조선후기에도 이어진다.³³ 이어 근대기 『석문의범』(1935)에도 유사하게 영산작법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즉 조선초의 ‘작법절차’라는 명칭으로, 조선후기를 거치면서 ‘영산대회작법절차’, ‘영산작법절차’ 등으로 불렸고, 천도의 개념으로 각배재가 결합하면서 영산재(제)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안진호의 『석문의범』에 영산재로 명시하면서부터 대중적인 개념으로 각인되고 보편화된 개념으로 정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 의례집에 나타난 명칭과 절차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Ⅲ. 영산재의 전개 양상

영산재의 전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산재는 수록재에서 분화되었다는 설과 두 번째는 영산재와 관련한 여러 명칭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수록재에서의 분화설

현행 우리나라의 재의식은 일반적으로 크게 수록재, 영산재, 상주권공재, 예수재, 시왕각배재 등 5종으로 나눌 수 있다. 심상현은 이들 재의식의 시원은 수록재이며, 이로부터 예수재, 각배재, 영산재 등이 탄생하였다고 보고 있다.³⁴ 하지만 이것은 현행 의식을 중심으로만 바라본 것으로서 수록재 등장 이전에 존재했던 의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견해이다. 그럼에도 수록재가 시원은 아니지만, 현행 각종 의례가 수록재에서 분화되었다는 점은 수록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³⁵

29 법현, 2001, 『영산재연구』, 운주사, p.147.

30 이성운, 2013,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36, 한국선학회, pp.259~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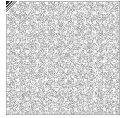
31 大愚集述, 1576,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2집.

32 박세민 편, 1993c,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제3집, 삼성암, pp.11~16.

33 백파공선(白坡巨璇, 1767~1852)이 순조 26년(1826)에 재식에 착오와 결합을 보충하고 의식의 통일을 위해 저술한 『작법귀감』에는 ‘삼보통청’으로 영산회와 유사한 재차를 수록하고 있다.

34 심상현은 수록재를 위시하여 예수재, 각배재 등은 영가의 천도 목적으로 거행하는 아간의식이며,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주간의식을 보완하기 위해 영산재가 탄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심상현, 2011, 앞의 논문, pp.2~3.

35 고상현, 2009, 「종교페스티벌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수륙재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2집,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pp.8~9.



현전하는 의례집을 볼 때, 영산재라는 독립적인 의례집은 없으며, 수록재와 영산재, 예수재 등에 독립적인 재차(齋次)로 영산작법(靈山作法)이 포함되어 있다.

경종 1년(1721)에 개관된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1721) 중 중권의 「지반삼주야작법절차」³⁶는 3일 동안 진행되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³⁷ 첫째 날 재전 작법으로 상단은 북쪽에, 하단은 남쪽에, 중단은 동쪽과 서쪽에 설치한다. 또한 동쪽에는 중단 외에도 당산단, 성황단, 오로단, 종실단을, 서쪽에는 제산단, 풍백단, 가람단, 사자단, 가친단 등 상중하단 모두 12단을 설치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후 작법으로 대령과 분수(焚修)는 평상시 하던 대로 한다는 점과 재가 죽은 혼령을 위한 것이라면 먼저 시왕부터 권공해야 한다고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반문에 따르자면, 재는 일반적인 재와 천도를 위한 재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조선시대 수록재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수록재는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자 베푸는 재계 의식이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망혼을 위한 천도재로서도 기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도적 기능으로서 수록재를 설행할 경우에는 그날 밤에 시왕을 자리에 청하여 권공의식을 진행하고 축원과 시식을 한다. 이는 고려시대 수록재에도 불덕(佛德)을 증득하는 목적이나 추선 천도의 기능으로도 활용되었으므로 조선시대만의 특징이라 할 수는 없다.³⁸ 다만 고려시대의 수록재 의례집이 발굴되지 않아 구체적인 비교연구를 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 간행된 의례집의 비교를 통해서 조선전기와 후기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둘째 날 오전에 법사이운과 영산작법을 한다. 2일째의 영산작법의 절차는 염향계, 『법화경』 독송, 수경계, 창훈, 정법계진언의 권공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영산작법은 『법화경』 독송이 의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재후에는 예수재나 조사례, 설선을 하기도 하고 제산단에 재를 올리는 등 상황에 보아서 작법을 한다. 『오종범음집』 상권의 「지반십이단삼주야배치차제규식」에서 소개한 영산작법 절차와 비교하면 창훈의식이 더해지고 있는 점이 다르다.³⁹ 셋째 날 작법은 막제(莫啼)를 한 뒤 법사이운을 하고, 지반문의 예에 따라 작법을 한다.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 중 하권의 「십권자기문삼주야작법규」⁴⁰와 「삼권자기문삼주야작법규」⁴¹에는 상권에 수록된 「지반삼주야작법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둘째 날 재전에는 영산작법은 동일하게 설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 하권에 수록된 「삼권자기문십권자기문검칠주야작법규」⁴²와 『오종범음집』(1661) 상권에 수록된 「지반십이단삼주야배치차제규식」⁴³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칠일에 걸친 의식진행을 수록하고 있다. 첫째 날 오전에 영산작법을 한다. 영산작법은 회주가 염향을 하고 대중이 함께 『묘법연화경』 제1권을 독송하는 의식이다. 독송의식이 끝나면 수경계(收經偈)로 경전을 거두고 권공한다. 오후에는 천왕단, 용왕단, 가람단 3단에서 각 위를 청하여 권공한다. 밤 시간인 축시에 상주작법을 하고 권공한다. 둘째 날 오전에 영산작법으로 『묘법연화경』 제2권을 독송한다. 오후에는 예적단, 명왕단, 범왕단, 제석단, 사왕단, 성황단 등 6단에서 각 위를

36 『한국불교전서』 제11책,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 483하; 박세민 편, 1993c, 앞의 책, p.38.

37 이 판본보다 앞서 범어사 소장본은 1700년(숙종 26)에 개관된 것도 있다. 이것으로 보아 17세기 이전에 이런 의례의 전범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8 고상현, 2011,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선문화연구』 11집.

39 연제영(미등), 2014, 『한국 수록재의 의례와 설행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7.

40 『한국불교전서』 제11책, 위의 책, 512중.

41 『한국불교전서』 제11책, 위의 책, 522중.

42 『한국불교전서』 제11책, 위의 책, 520하.

43 『한국불교전서』 제12책, 『오종범음집』, 173상.

청하여 권공한다. 축시를 기다렸다가 상주작법으로 마지를 올리고 권공한다. 셋째 날 오전에는 영산작법으로 『묘법연화경』 제3권을 독송한다. 오후에는 설선작법을 하고, 사자단과 오로단의 양단을 청하여 권공한다. 밤에는 축시를 기다렸다가 상주작법으로 마지를 올리고 권공한다. 넷째 날 오전에는 영산작법으로 『묘법연화경』 제4권을 독송한다. 오후에는 비로단, 지향단, 행주단, 삼십삼단 등 4단에서 각 위를 청하여 권공하고 시식을 한다. 다섯째 날 오전에는 영산작법으로 『묘법연화경』 제5권을 독송한다. 오후에는 나한단, 개종단, 향당단, 제산단 등 4단에서 각 위를 청하여 권공한다. 여섯째 날 오전에는 영산작법으로 『묘법연화경』 제6권을 독송한다. 오후에는 제천단, 제신단, 시왕단 등 3단에서 각 위를 청하여 권공하고 시식한다. 마지막 칠일째 날 오전에는 영산작법으로 『묘법연화경』 제7권을 독송한다. 오후에는 종실단, 왕사단, 법계단, 지옥단, 아귀단, 방생단, 상중하고 혼삼단 등 7단에서 각 위를 청하여 시식한다.

이상의 7일간 주야로 수행되는 절차의 특징은 매일 재전(오전)에는 영산작법이 진행되고 『묘법연화경』을 매일 1권씩 7권을 독송한다는 점이다.⁴⁴

그런데 다음의 표현에 주목해 보자. 『천지명양수륙재 의범음산보집』의 「주시련론(晝侍輦論)」에서 “대개 수륙재를 베푸는 가운데 영산은 이에 특별한 작법이다.(盖水陸設辦之中 靈山乃是別作法也)”라고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영산작법은 수륙재 실행시에 같이 실행은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작법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륙재와 영산작법은 본래 동일한 주제로 거행하는 의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오종범음집』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밤에만 행하는 수륙재를 보완하여 낮 시간대인 사시(巳時)에 맞춰 부처님께 공양올리며 연경법회(蓮經法會, 법화경법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산작법의 실행을 추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던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수륙재가 주간(晝間)에 실행하는 의식으로 변화되면서 재전작법과 재후작법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전작법을 점심 이전에 실행하는 것은 부처님은 하루에 한번 오전 중 공양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의례화하여 사시(9~11시)에만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수륙재를 실행한다고 하여 사시에 올리는 공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륙재를 실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부합하는 의례로 영산작법절차를 거행⁴⁵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던 의례절차는 어느 때부터인가 수륙재가 주간(晝間)의 의식으로 변화되면서 재전작법과 재후작법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진언권공』(1496) 이전 수륙재를 실행할 때에는 사시에 어떻게 하였느냐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소동과 누이의 지적이나 주시련론에 따르면 수륙재시에 별다른 의식으로 사시의례를 지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시점에서 왜 주간의식의 필요성이 등장하고 그것이 정형화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현재 중국에서 수륙재를 실행할 때 설치하는 대단, 화엄단, 법화단, 능엄단, 제경단, 정토단 등 6개의 내단(內壇)이다. 여기서도 보여지듯이 법화단이 마련되고 있다.⁴⁶ 이처럼 수륙재에는 영산작법과 영산단을 비롯한 각종 단이 마련되고 이와 관련된 의례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어느 시점에서 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영산재의 경우에는 영산회(영산작법)가 분화되고 천도재의 기능이 결합되면서 영산재로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수륙재는 길게는 7일 주야로 실행되었던 불교의례로 작법무(무용)와 범패(음악) 등이 행해진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지닌 의례였다. 수륙재는 태종 15년(1415)부터 고려조와 조선초까지 행해졌던 연등회 때와 같은 날로 통합되면서 일부 형

44 연제영(미등), 2014, 앞의 논문, pp.105~114.

45 해일명조, 2015, 앞의 책, pp.578~579.

46 현행 우리나라 수륙재에서는 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있으나, 중국에서처럼 각 단에서 경을 독송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전각에 단을 표시하는 번을 붙이고 경전을 독송하는 등의 복원 움직임이 있다.



식이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⁷ 중종이후 국행수륙제가 폐지되어 민간화되면서 대시주인 설판재자가 줄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불교의 각종 재는 설판재자의 보시에 따라 재의 규모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또한 얼마 뒤 발발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병화를 겪음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된 형태로 재가 설행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수륙재로서 유지되기도 하지만, 조상 천도를 위한 우란분제나 구병을 위한 구병시식, 방생시식, 사찰에서 각종 불사 후에 베풀어지는 시식과 더불어 영산회 등으로도 분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⁸

삼장보살도의 분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장보살도는 조선전기인 1469년에 발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촬요』에서는 중단의 존상은 천선지기명부관료등중으로 구별없이 봉칭되었다. 이듬해인 1470년에 발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에는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을 상수보살로 언급하고 있다. 이들이 주관하는 세계는 각각 천도(天道), 신도(神道), 명도(冥道)로 나누고 각 세계에 해당하는 권속을 나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선후기 1661년에 간행된 『오종범음집』에서는 삼장보살의 세계를 상계(上界), 음부(陰府), 유명(幽冥)으로 나누고 있다. 상계는 천장보살, 음부는 지지보살, 유명은 지장보살의 틀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1709년에 발행된 『범음산보집』에서는 다른 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예수재와의 관계성이다. 예수재는 시왕신앙과 관련하여 고려시대부터 설행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설행에 대한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예수시왕생칠경』이 간행된 사례가 있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은 정안(鄭晏, ?~1251)이 주도하여 1246년(고종 22)에 간행한 것으로, 해인사 사간장경 판본으로 남아있다. 현재 국보 제206-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예수재의 상례화에 기여하는 또 하나는 수륙재와의 동시 설행”이라고

하여 『범음산보집』 등의 수륙재문에 예수재 의식의 흔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⁴⁹

예수재의 의례절차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산회는 예수재에서 분화된 것이 아니라 수륙재와 예수재가 밤에 설행되는 만큼, 사시의 불공양을 위한 의례로 보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륙재가 주간에도 설행되면서 밤에만 설행되었던 밤재로서만이 아니라 점심 재전의 영산과 재후의 작법으로 성격이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2. 영산재의 명칭 변화양상

영산재를 거론하면서 별다른 의문없이 영산재라는 고유명사화되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는 영산재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그것이 전통성과 정통성을 지니면서 현행의 의례 명칭으로 합당한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산재라는 통칭은 개화기 이전의 사료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재라는 개념을 영산이라는 명칭의 의례로는 영산회, 영산대회, 영산(회)작법, 영산제, 영산재 등이 찾아진다. 이들의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영산(대)회, 영산작법 등의 용례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의례집과 화불(불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회는 1613년(광해군 5) 경산 안흥사에서 간행한 『영산대회작법절차』가 현재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올라간다. 이후 1634년(인조 12)에 경기도 삭녕 수청산 용복사에서 복간되었다. 여기에는 분수작법, 소례결수작법절차, 중례문작법절차, 지반문작법절차, 성도작법절차, 별축상작법절차 등 총 14편의 의식절차가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⁵⁰ 용복사에서는 1632년부터 1635년까지 4년간에 걸쳐 6종의 의식집을 간행하였다. 1632년에는

47 태종14년(1414) 2월 6일조, “관음굴, 진관사, 대산 상원사, 거제 견암사에 매년 2월 15일 수륙재를 행하였는데, 금후로는 정월 15일에 행하는 것으로 향식을 삼으라”는 내용으로 볼 때, 정월 15일은 연등회가 열렸던 때이므로 날짜의 변경에 따라 설행되어지는 양식들도 일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8 전경욱, 2008, 「수륙재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양상」, 『제2회 법성포단오제 학술대회 법성포수륙대제, 법성포단오보존회, p.14.

49 이성운, 2015, 앞의 논문, pp.35~36.

50 박세민 편, 1993b,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제2집, p.127.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계』, 『운수단』, 『예수시왕생칠재의 찬요』를, 1634년에는 『설선의』, 『영산대회작법절차』, 『공양문』을, 1635년에는 『천지명양수륙잡문』을 차례로 간행하였다. 간행된 책의 내용을 보면, 수륙재, 예수재, 영산대회 등의 각종 재의식집을 비롯하여 선가의 수행의식집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의식집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의식집의 간행이 일시적인 시주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간행계획을 세워 화주에 의해 중요한 의식집들을 선정하고 연차별로 실행에 옮겼음을 알 수 있다.⁵¹

이 시기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 7년간 일어난 임진왜란이 30여 년 지난 시점이자 1627년의 정묘호란이 갓 지나고 1636년의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시점이었다. 임진왜란으로 사찰 건축물의 소실, 전지의 황폐화, 소유권의 혼란 등 사찰 경제기반이 흔들렸다. 반면에 승려 개인의 사유지를 문도에게 상속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법적 용인을 얻으면서 사원재정의 확대와 유지가 가능해졌으며, 의승군의 동기 유발과 공로 치하를 위해 도첩(度牒)과 선과첩(禪科牒)이 지급되었다.⁵² 이런 전란들로 인해 천도 추선의례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의 『부휴당집』에 ‘천전사망혼소(薦戰死亡魂疏)’를 비롯한 12편의 소가 수륙재 등 천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전란으로 죽은 시체들의 뼈를 수습하여 야장하고 초제를 지낸 후 수륙재 등 천도재를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의식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과 전쟁으로 망실이나 소실된 의례집이 간행되었을 것이다. 16~17세기는 불교의례집의 간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 사찰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간행한 점을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이 시기에 간행된 의례집에서 주목할 점은 이전에 나

타나지 않았던 영산작법이란 용어의 등장이다. 성종 원년인 1470년에 김수온(1410~1481)이 교지로서 발문을 쓴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계』 등 조선초기의 수륙의례집을 포함하여 여타의 의례집에서는 영산회나 영산작법이란 용어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 이후인 1496년 학조(學祖)가 번역하여 간행한 진언권공이 주목된다. 이 의례집은 진언권공, 작법절차, 삼단시식문, 수행육도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작법절차(作法節次)의 내용을 살펴보면, 할향으로 시작하여 연향계, 할축, 연등계, 할화 … 등으로 영산작법의 절차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이것으로 보아 15세기 후반까지 영산작법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지 않아 작법절차로 불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그 이후 138년 뒤인 1634년에 영산작법절차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미 작법절차로서 행해지던 의례를 영산회로 정의하였음을 의미한다.

영산재의 명칭들이 영산회, 영산작법, 영산재 등으로 불리면서 절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살펴보면, 이들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진언권공』에서는 창혼(唱魂)의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영산대회작법절차』(1634)에서 일부가 보이다가 『오종범음집』(1661)에서부터 설법계 - 수경계 - 사무량계 - 창혼의 절차가 나타난다. 혼령을 부르는 창혼(唱魂)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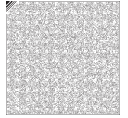
“원하건데 받들어 선왕 선후의 자리에 배열한 선가를 위하여 … 오늘 재자 시주 등은 앞드려 추천(追薦)을 발원하오니 … 선망 선조와 부모 등 자리에 배열된 이름을 열거한 영가들이 서방의 안락한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⁵⁴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http://e-kyujanggak.snu.ac.kr>.

52 김용태, 2015,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 p.186.

53 박세민 편, 1993a,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제1집, 삼성암; 서정매, 2015, 앞의 책, p.54 재인용.

54 “願我奉爲先王先后列位仙駕…願我今日[齋者施主]等 伏爲追薦…先亡[祖先父母] 列位列名靈駕 後生西方安樂刹”



이것으로서 천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수록재에서도 밝혔듯이, 영산대회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자 베푸는 의식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망훈을 위한 재 의식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창훈이 고차

화되면서 영산대회는 점점 재(齋)로 인식되어 영산재로 승속을 막론하고 일반화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앞서 2장과 3장에서 언급한 의례집의 절차를 정리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⁵⁵

표 1. 의례집의 영산재 절차 비교

| 『진언권공』 (1496) | 『영산대회작법절차』 (1634) | 『오중범음집』 (1661) | 『범음산보집』 (1721) | 『석문의법』 (1935) | 현 영산재 (봉원사) |
|--|--|---|---|---|--|
| (작법절차) | | | | 〈영산각배〉 괘불이운 - 건회소 수설대회소 | 타종 및 시련 - 대령 - 관육 - 괘불이운 - 건회소 - |
| 할향 - 연향계 - 할족 - 연등계 - 할화 - 서찬계 - 삼귀의 - | 할향 - 연향계 - 할족 - 연등계 - 할화 - 서찬계 - 삼귀의 불보찬 - 법보찬 - 승보찬 - 합장계 - 고향계 - | 상변할향(쌍주) - (연향계) - 중변할등(쌍주) - (연등계) - (할화) - (서찬계) - 삼귀의찬 - (불찬) - 중부법보찬 - 삼부승찬 - 상부합장계(쌍주) - (고향계) - | 할향 - 연향계 - 할등 - 연등계 - 할화 - 서찬계 - 불찬(대직찬: 불타야) - 중직찬(달마야) - 소직찬(승가야) - 합장계 - 고향계 - | 〈영산작법〉 할향 - 연향계 - 할등 - 연등계 - 할화 - 서찬계 - 불찬 - 대직찬 - 중직찬 - 소직찬 - 개계소 수설대회소 - 합장계 - 고향계 - | 할향 - 연향계 - 할등 - 연등계 - 할화 - 서찬계 - 불찬 (대직찬: 불타야) - 중직찬(달마야) - 소직찬(승가야) - 개계소 - 고향계 - |
| 개계문 - 관음청 - 향화청 - 심청후쇄수계 - 송천수주회도량쇄수후환입법당운 - 우운 - | (개계편) - 관 음찬계 - 관음청 - 중화향화청(쌍주) - (향화청) - (결수계) - 쇄수계 - 사방찬 - 도량정엄계 - | (개계편) - (관음찬) - (관음청) - 향화청(쌍주) - 결수계(쌍주) - (쇄수계) - 복청대중운~(쌍주) - (사방찬) - 엄정계(쌍주) - | 관음찬 - 관음청 - 결수계 - 쇄수계 - 사방찬 - 엄정계 - | 개계편 - 관음찬 - 관음청 - 향화청 - 결수계 - 쇄수계 - 대회소(수설대회소) - | 영산개계편 - 관음찬 - 관음청 - 향화청 - 산화락 - 가영 - 결수계 - 쇄수계 - 복청계 - 천수바라 - 사방찬 - 도량계 - 법고 - 대회소 - |
| 육거불 법화죽 - 화엄죽 - 참경죽 - 미타참죽 - 지장경죽 - 염향 - 개경계 - 회주석제 - 동송 - 청불 - (삼례청) - 사부청 - 헌좌계 - 헌좌진언 - 헌전물 - 명발 - 독소 - | 법화거불 - 화엄거불죽 - 참경거불 - 미타참거불죽 - 지장경거불 - 청불기두 - (삼례청) - (사부청) - 소례단청불죽 - 헌좌진언 - 다약계 - 정대계 - 개경계 - | 육거불 - 단청불 - 헌좌계 - 다계 - 삼례청 - 사부청 - 일체공경~ - 향화계(쌍주) - 공양진언(쌍주) - 퇴공진언(쌍주) - (정대계) - (개경계) - | 거불 - 대청불 - 단청불 - 헌좌계주 - 일체공경 불법승 - 향화계 - 개경계 - 개법장진언 - | 거불 - 삼보소 수설대회소 - 대청불 - 삼례청 - 사부청 - 단청불 - 헌좌계 - 다계 - 일체공경 - 향화계(공양진언 - 퇴공진언 ... 정대계) - 개경계 - | 거불 - 삼보소 - 대청불 - 삼례청 - 사부청 - 단청불 - 헌좌계 - 다계 - 일체공경 - 향화계 - 정대계 - 개경계 - 개법장진언 - |
| | 청법계 - 설법계 - 사무량계 - | (청법계) - (설법계) - (수경계) - (사무량계) - | 청법계 - 설법계 - 수경계 - 사무량계 - | 청법계 - 설법계 - (회주설법마침) - 보결진언 - 수경계 - 사무량계 - 귀명계 - | 청법계 - 설법계 - 보결진언 - 수경계 - 사무량계 - 귀명계 - |
| 변식진언 - 감로수진언 - 일자수륜관진언 - 유해진언 - | (창훈) - 정법계진언(쌍주 명기) - 향수나열~ - 변식진언 - 시감로수진언 - 일자수륜관진언 - 유해진언 - 상래가지~ - | (창훈) - 정법계진언(쌍주) - (향수나열~) - 변식(쌍주) - 시감로주(쌍주) - 수륜관주(쌍주) - 유해주 - (상래가지~) - | (창훈) - 육건마다라선송정법계진언 - | 창훈 - (요잡 멈춤 - 정법계진언 육건만나라선송) - 향수나열 - 사다라니 - 무량위덕자재광명 변식진언 시 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 - 상래가지~ - | 창훈 - 지심귀명례 - 육건마다라선송 정법계진언 - 향수나열 - 사다라니 - 상래가지 - |
| 육법공양 - 찬향 - 향공양(배헌해탈향) - 찬등 - 등공양(배헌반야등) - 찬화 - 화공양(배헌만행화) - 찬과 - 과공양(배헌일업과) - 찬다 - 다공양(배헌감로다) - 찬미 - 미공양(배헌선열미) - 향화송운 - 보공양진언 - 보회향진언 - 송심경 - 요잡 - 삼자귀의 - 명발 - 축원후 - 양일체공경 - 향화계 - 찬례삼보 - 법화죽 - 송거후 창훈 운운 - 여의륜주 | 향공양병찬 - 등공양병찬 - 화공양병찬 - 과공양병찬 - 다공양병찬 - 미공양일병창 - 향화송 - 화개기악공양 - 의복향등공양 - 보공양 - 보공양진언 - 보회향진언 - 풍경 - 계운 | 육법공양 - (배헌해탈향) - (배헌반야등) - (배헌만행화) - (배헌보리과) - (배헌감로다) - (배헌선열미) - (각집계) - 보공양진언 - 보회향진언 | 배헌해탈향 - 배헌반야등 - 배헌만행화 - 배헌보리과 - 배헌감로다 - 배헌선열미 - 각집계 - 의복향등공양 - 자성심향공양 | 육법공양 - 배헌해탈향 - 배헌반야등 - 배헌만행화 - 배헌보리과 - 배헌감로다 - 배헌선열미 - 각집계(가지계) - 보공양주 - 회향주 - 제진언 마침) | 육법공양 - 각집계 - 가지계 - 화정 회심곡 - 공덕계 법성계 및 회향 |

55 본고에서는 원고량의 제한으로 간략하게 언급된 내용을 보완하고 전체적인 재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제시한다. 서정매, 2015. 앞의 논문, pp.54~67를 참조하였다. ()는 제목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내용상으로 표기하였다. ‘쌍주’는 쌍주의 작은 글씨로 씌어진 것을 말한다.

의례는 화불(畫佛)에도 영향을 미쳤다. 화기의 명칭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영산대회작법절차』에는 대영산회탱(大靈山會幀) 조성에 대해 적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⁵⁶ 괘불탱의 경우에도 영산회탱, 영산괘불탱(靈山掛佛幀)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1664년 공주 신원사에서 조성된 괘불은 대영산회탱(大靈山會幀), 1673년 청양 장곡사에서 조성된 괘불은 영산대회탱(靈山大會幀), 1700년 부안 내소사에서 조성된 괘불은 영산회괘불화(靈山會掛佛畵), 1772년 서산 개심사에는 대영산괘불탱(大靈山掛佛幀) 등으로 명기하고 있다. 법당의 후불화에도 영산회로 불리고 있다. 안동 봉정사에도 영산회후불벽화, 1693년에 제작된 전남 여천 흥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1731년 제작된 구미 수다사 대웅전에 봉안된 화불은 수다사 영산회상도, 1901년 조성된 산청 문수암 석가영산회후불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이 이전까지 영산회로 명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영산제의 용례이다. 개화기 이후 근대기인 1918년에 불교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신고 있는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서도 수록제, 수록회, 나한제 등과 영산회상, 영산회상곡 등은 수록되어 있지만, 영산제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영산제는 개화기 이후 발간된 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1898년 10월 22일자 『독립신문』의 '시폐 개탄론'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그것이다.

빅성이 일년 동안에 버려서 공용외에 허비 하는 일) 첫 지는 굿 하는 일이며 경 넓은 일이며 또 춘추로 하는 제스는 디신 제며 산신제며 룡신 제며 군형 제며 국스제며 성황 제며 령산 제며 이 맞기도 모든 제스 등절을 다 기록할슈 업스오며 또 각처에 있는 절과 암즈와 미력 의게 기도 하는 일이며 또 공해 각청 방즈와 고직이와

면 주인키의 조곡이며 또 모든 관속키의 토식이며 간향 활리키의횡침이며 또 증과 굿중패와 거스와 녀사당패와 남사당패와 초란이와 솟대장이패와 산디패와 풍각장패 등군패의 구결이며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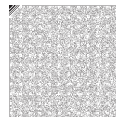
위의 기사는 백성이 1년 동안 벌어서 공용 외에 허비하는 일로 굿 하는 일과 경 읽는 일, 춘추로 제사지내는 일, 절과 암자, 미륵에게 기도하는 일 등으로 꼽고 있다. 이 가운데 춘추로 제사지내는 일에는 지신제, 산신제, 용신제, 군행제, 국사제, 성황제, 영산제 등으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령산 제' 즉 영산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기 사료 가운데 현재까지 발굴된 하나의 사례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이미 이 즈음에 불교적 제와 일반적인 제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자 외의 유자나 일반인 등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제사의 의미로서 영산제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불교적인 제와 일반적인 제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에도 그러했던 것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아래 셋째에서 언급하겠지만, 영산제라는 용어가 이보다 뒤에 활자화되었던 것으로 보아, 영산제라는 명칭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불교적인 영산제로 바로 잡고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독립신문은 1896년 미국에 망명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서재필이 창간한 것으로 전통적인 불교(의례)나 무속신, 조상신을 부정적이고 낡은 관습으로 철폐해야 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물론 당시 이들만이 아니라 한용운과 같은 불교계 개혁론자들도 의례의 폐해를 지적하며 타파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용운은 1935년 『석문의범』 발간에 후원하는 등 입장이 바뀌게 된다.

셋째는 영산제의 용례이다. 17세기 중엽 이전에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범음산보집』 이후 종합 불교의례

56 박세민 편, 1993b, 앞의 책, p.148; 정명희, 2015, 「조선시대 불교의식과 불교회화」, 『불교의례』, 열화당, pp.224~225.

57 독립신문, 1898.10.22, "시폐 개탄론", <http://www.kinds.or.kr/mediagaon/goNewsView.do>.



를 담고 있는 『작법귀감』(1826)의 목차에도 영산재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1911년 5월 20일자 「매일신보」의 <정토종회(淨土宗會)의 영산재(靈山齋)>에서 그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⁵⁸ 이후 1935년 간행된 안진호(安震湖)의 『석문의범』에 나타나고 있다.⁵⁹ 여기에서는 목차에 ‘영산재(靈山齋)’로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제4 재공편(齋供篇) 제2 영산각배(靈山各拜) 甲, 영산(靈山)으로 명기하고 있다. 『석문의범』의 전범이 되는 1931년 편찬된 『불자필람(佛子必覽)』에서도 영산재라는 명칭은 없으며, 영산각배(靈山各拜)라 하고 있다.⁶⁰ 『불자필람』도 연방 최취허(蓮邦 崔就墟)와 진호 안석연(震湖 安錫淵)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권상로와 김태흡이 교정하고 한용운이 깊이 후원하여 발간한 의례집이다.

이 두 사례로 보아 영산제 혹은 영산재라고 불리던 것을 안진호가 출판을 통해 영산재로 정립하여 대중화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알려진 영산제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불자필람』은 발간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주문이 쇄도하여 모두 소진한 이후, 결국 4년 뒤에 『석문의범』 발간을 위해 만상회를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할 필바탕을 마련하였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목판인쇄로 전해지던 의례집이 소수에게만 보유되던 것을 근대적 출판에 의한 불교의례집 발간으로 인해 승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자필람』에는 영산각배를 수록하지 않고 있지만, 『석문의범』에는 본문에서 영산각배라고 하고 목차에서는 영산재라고 하고 있어, 안진호는 영산각배와 영산제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 시기에 영산과 각배를 통합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수륙제는 수륙회, 수륙제회, 수륙제, 수륙도량 등의 다양한 명칭이 사료상에 등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산제는 영산(대)회, 영산(대)회작법 등 그 명칭이 제한되어 불리고 있다.

점심공양의 재와 ‘전 재의식’이 통합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되었거나⁶¹ 천도적 의식이 확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의식에 ○○재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영산제도 부처님의 회상을 상징화하고 예불 권공시에는 작법으로 부르다가 천도의 개념이 결합하면서 재로 통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산재라는 의식의 이름으로 확정된 시기는 적어도 19세기 후반이며, 사료상의 등장은 20세기 초반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영산의식과 관련해서는 영산대회, 영산대회작법, 영산작법, 영산제, 영산제 등으로 불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산회로 불렸던 것은 불보살에 대한 권공의식과 더불어 불보살의 가르침을 강독하거나 교설하기 위한 모임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천도 추선 등의 개념이 강해지면서 영산제, 영산제 등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식은 영산재라는 명칭으로 점차 하나의 독립된 의식으로 분화되었고 오늘날처럼 정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무형의 문화유산은 유형의 문화유산과는 달리 시대의 변화나 지역, 전승주체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영산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영산회의 성립과 전개를 통해 그동안의 영산회를 하나의 전형에서만 보려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58 한상길, 2010, 「한국 근현대신문에 나타난 불교의례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54, 한국사상문화학회, p.36.

59 안진호, 1935, 앞의 책, p.6; 독립신문, 1898.10.22, 앞의 글, <http://www.kinds.or.kr/mediagaon/goNewsView.do>.

60 『불자필람』에는 20개의 범례 중 19번째로 “佛事位目, 點眼文, 靈山各拜, 十王各拜等, 特別한 依式은 此를 後日로 미루고 本書에는 備載치 아니함”이라 명시하고 있다. 최취허·안진호, 1931, 『불자필람』, 불교사.

61 이성운, 2013, 앞의 논문, p.120.

영산재와 관련한 명칭이 등장하지 않지만 의례의 절차가 유사한 조선초기부터, 영산대회, 영산작법 등의 명칭이 등장하는 조선중후기와 영산재(제)가 등장하는 근대기를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다. 지역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고 있다. 오늘날 일반화된 영산재라는 이름은 어느 시기부터 불리다가 개화기, 근대기를 거치면서 정착되고 대중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름이 그러하듯이, 내용과 절차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산회의 본래 의미는 영산회상에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하는 장면의 의례화를 통해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고 귀의하게 하며 무상정등정각을 깨우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창혼 등 각배(各拜)가 추가되면서 추천적 의례가 확대되고 강화되어 『석문의범』에서처럼 영산각배로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 영산재는 천도의례로 분류하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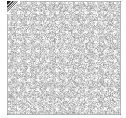
문제는 영산재라는 단일 이름에서 오는 오늘날의 관념, 단일한 개념은 단일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러해야만 옳다는 관념이다. 김치가 지역과 사람에 따라 동일하지만 다르게 요리되듯이, 영산재라는 불교의식도 또한 그러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응동보화되어 왔다. 이는 불교의례로 통칭되는 것에도 적용된다. 어떤 이들은 불교의례라고 하면 그것이 그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륙제, 영산재, 예수제, 각배제 등의 유사성과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인식 오류이다. 혹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교의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까. 불교의례로서의 유사성은 없지 않지만, 각기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안, 즉 수륙제와 영산재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면 이를 부정하려고 한다.

본고에서 영산재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밝혀봄으로써, 그것을 수용하면서 현재적 의미를 다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시대에 맞게 의례가 어떻게 당대의

민중들과 호흡했는지를 읽을 수 있으며, 그 시대적 전형의 복원도 가능해질 것이다. 영산재는 범패라는 이름으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40여 년이 지났으며, 영산재라는 이름으로도 지정된 지 내년이면 30주년이 된다. 이제는 현행 영산재와 시대별 영산재의 복원에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때이다. 시대별, 지역별 복원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와 설행은 또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산재를 넘어 불교의례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불교의례의식집의 집성과 데이터베이스화, 한글화 등 종합적 토대 연구조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영산재가 의례로서의 진중함보다는 미성(美聲)이나 기교 등의 기예에 치중하기보다는 수행자의 청정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범음이 되었을 때 무형문화로서의 가치를 더욱 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계와 문화계, 종교계의 비평적 참여로 범패의 미적 특질에 대한 객관적 정립도 필요하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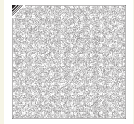


참고문헌

- 고상현, 2015, 「불교축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 『불교학보』 제70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고상현, 2011,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선문화연구』 11집
- 고상현, 2009, 「종교페스티벌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수록재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2집,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pp.8~9
- 권영문, 1995, 「화청의 서사문학적 변용」,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 권오성, 2005, 「한국법패의 역사」 『한국전통음악』, 민속원, pp.69~87
- 김영렬, 2011, 「영산재의 문화 콘텐츠 만들기」, 운주사
- 김용태, 2015,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 p.186
- 김응기, 2004, 「영산재 작법무 법패의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 김종일, 1999, 「현행 불교의례의 현장조사 -현행 영산재에 대한 고찰-」 『불교전통의례와 연극 연희화의 방안』, 엠에드
- 김화미, 2013, 「甘露帳과 현행 재의식에 나타난 作法舞 研究」, 동방대학원대 박사학위논문
- 김희준, 2001, 「조선전기 수록재의 설행」 『호서사학』 30집, 호서사학회
- 노명열, 2010, 「현행 생전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 비교 고찰」,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박세민 편, 1993a,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제1집, 삼성암
- 박세민 편, 1993b,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제2집, 삼성암, p.127, 148
- 박세민 편, 1993c,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제3집, 삼성암, p.38, pp.11~16
- 박성철, 2005, 「靈山齋의 文化的 活用모델 研究 -'회심곡'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박진태, 2006, 「한국 불교축제와 공연예술의 관련양상」 『공연문화연구』 12, 한국공연문화학회(구, 한국고전희곡학회)
- 박혜정, 2011, 「충청도 불교음악 연구의 현황과 전망 -내포 영산재의 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음악문화연구』 2, 한국음악문화학회
- 백일형, 1987, 「법패 팔공산제에 관한 연구 -중성 · 할향 · 합장계 · 칠여래 · 화청을 중심으로-」
- 백일형, 1986, 「법패 팔공산제에 관한 연구」
- 법현, 2005, 「한국의 불교음악」, 운주사, p.16
- 법현, 2001, 「영산재연구」, 운주사, p.147
- 서정매, 2015, 「영제법패 '영산작법'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pp.54~67
- 서정매, 2013, 「영제 '영산작법' 절차의 시대적 변천 연구」
- 서정매, 2012a, 「부산지역 법패승 연구」
- 서정매, 2012b, 「영제 '삼귀의' 절차의 시대적 변천 연구」
- 손인애, 2014, 「경제(京制) 각배 '갈수(乞水)' 연구(1) -개성지역 법패와 관련하여-」 『공연문화연구』 29, 한국공연문화학회(구 한국고전희곡학회)
- 심상현, 2015, 「영산재의 효율적 전승과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23, 한국정토학회, p.254, pp.35~42
- 심상현, 2011, 「영산재 성립과 작법의례에 관한 연구」, 위덕대 박사학위논문, pp.2~3, 35~42
- 심효섭, 2005, 「조선전기 영산재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p.109, pp.65~78
- 심효섭, 2003, 「조선전기 기신재의 설행과 의례」 『불교학보』 40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안진호, 1935, 「석문의법」, 만상회, p.6, 238
- 연제영(미등), 2014, 「한국 수록재의 의례와 설행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05~114

참고문헌

- 윤소희, 2011, 「영남범패연구」
- 윤소희, 2010, 「불교음악의 기원과 전개」 『한국음악사학보』 제44집, 한국음악사학회
- 윤소희, 2009, 「티벳 참무를 통해 본 처용무와 영산재 -사허(夏河)의 라브랑스(拉卜楞寺)를 통하여-」 『한국음악연구』 46, 한국국악학회
- 윤소희, 2008a, 「영남범패의 소리길과 성음」
- 윤소희, 2008b, 「영남범패 전승에 관한 연구」
- 이능화, 1932, 『조선불교통사』 하권, 보려각
- 이보형, 2012, 「한국의 종교음악연구와 과제」 『한국음악문화연구』 제2집, 한국음악문화학회, pp.19~20
- 이성운, 2015, 「영산재와 수록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73, 한국불교학회, pp.35~36, 417~449.
- 이성운, 2013,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36, 한국선학회, p.120, pp.259~260
- 이애경, 1999, 『영산재 작법의 무용미학적 고찰』,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 2003, 『조선후기 괘불탱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전경옥, 2008, 「수륙재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양상」 『제2회 법성포단오제 학술대회 법성포수륙대제』, 법성포단오보존회, p.14
- 전인평, 1998, 「티벳 불교음악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21집, 한국음악사학회
- 정명희, 2015, 「조선시대 불교의식과 불교회화」 『불교의례』, 열화당, pp.224~225
- 채혜련, 2011a, 『영산재 범패의 선율에 관한 연구 -박송암류 상단권공 '훗소리·짓소리'를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 채혜련, 2011b, 『영산재와 범패』, 국학자료원, p.37, 45
- 최로덴, 2006, 「티베트 불교의식의 수행적 의미 악 가 무 등의 개별적 요소에서 종합 의례까지」 『영산재학회 논문집』 제4호, 옥천범음대학
- 최취허·안진호, 1931, 『불자필람』, 불교사
- 최현, 2006, 「부산·경남지역의 영산재」
- 한만영, 1984 증보판, 『한국불교음악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3
- 한상길, 2010, 「한국 근현대신문에 나타난 불교의례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54, 한국사상문화학회, p.36
- 헤일명조, 2015, 「수륙재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제언」 『한국 수륙재와 공연문화』, 글누리, p.575, pp.578~579
- 홍윤식, 2001, 『영산재』, 대원사, pp.8~17
- 홍윤식, 1989, 『불교의식』, 문화재관리국
- 홍윤식, 1987, 『영산재』,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p.9
- 大愚 集述, 1576,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2집
-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2집, 『오종범음집』, 182中(『한국불교전서』 12책)
- 『한국불교전서』 제11책,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512중, 522중, 483하, 520하
- 『한국불교전서』 제12책, 『오종범음집』, 173상
- 한국불교신문 제604호, 2013.05.04
- 독립신문, 1898.10.22, “시폐 개탄론” <http://www.kinds.or.kr/mediagaon/goNewsView.do>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http://e-kyujanggak.snu.ac.kr>



Study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Yeongsanjae

Ko Sang-Hyun

Department of Cultural Contents, Dongg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avalo09@hanmail.net

Abstract

Since being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Yeongsanjae has become recognized as a unique representation of Buddhist rituals in Korea. Following vigorous research in recent years, however, Suryukjae(水陸齋) was found to have been performed for a longer period and on a larger scale than Yeongsanjae, and under state leadership. This allowed researchers to move beyond the previous perspective that Yeongsanjae(靈山齋) lay at the center of many rituals.

This study aims first to examine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Yeongsanjae in Korea based on the literature, and then to discuss the meaning it holds today.

Yeongsanjae was recorded as a ritual in *Jineongwongong* —published in 1496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also appeared in *Yeongsandaehoejakbeopjeolcha* —published in 1634(the 12th year of Injo's reign) in the mid-Joseon Dynasty and it was called Yeongsandaehoejakbeopjeolcha.

It continued into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 was called Yeongsanjakbeop or Yeongsandaehoejakbeop in the *Ojongbeomeum* collections(1661), *CheonjimyeongyangSuryukjaeuiBeomeumsanbo* collections(1721), and *Jakbeobguigam*(1826). In modern times, it has been called Yeongsanje in newspaper articles of *TongnipSinmun* (The Independent) and Yeongsanjae in *Seokmunuibeam*(1935). Nevertheles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subsequent periods is whether mourning of the spirit(唱魂) is added. In this regard, Yeongsanho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mainly concerned Buddhist teachings realized through rituals such as sermon scenes of the Buddha. On the other hand, it was combined with Buddhist masses for the dead(追薦) from the mid-Joseon Dynasty and performed alongside with Buddhist teachings and prayers for the dead. Taking into account the seven-day Suryukjae, however, Yeongsanjae was performed daily during the day and mainly dealt with Buddhist teachings, while Buddhist masses for the dead were included when Yeongsanjae was performed independently.

Key Word Buddhist ritual, Yeongsanhoe, Yeongsanjae, Suryukja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eived 2016. 09. 30 • Revised 2016. 10. 19 • Accepted 2016. 10. 27